

##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817호

나. 발 의 자 : 장흥순 의원(김동윤 의원 등 찬성자 11명)

다. 발의일자 : 2017년 5월 25일

라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31일

### 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에서 역사적·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·관리할 필요 있음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시 관내의 역사적·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·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7조의2 신설)

## 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 가. 조례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서울시 관내에서 역사적,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·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영상물 제작장소 관련 현황

- 영상물은 스크린, 비디오, 텔레비전 등의 영상 매체로 전달되는 작품으로 영화, 애니메이션, 드라마 등이 있으며, 영상물의 종류에 따라 제작장소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내 스튜디오와 야외 촬영장이 대표적인 시설에 해당됨.
- 영상물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영화를 중심으로 제작 장소에 대하여 살펴보면 촬영소는 영화제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최초로 제작되던 1920년에는 영화제작사가 각기 촬영소를 두고 영화를 제작하였으나 1930년대부터 경성 촬영소, 의정부 촬영소 등 전문적인 영화 촬영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.
-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영화가 중흥기를 맞이하면서 정릉 스튜디오, 삼성 스튜디오, 안양 스튜디오, 신필름 원효로 촬영소 등 할리우드식 스튜디오들이 등장하여 현대적인 영화제작 환경이 구축되었음.

-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영화의 수입개방 등으로 한국영화가 어려움에 처하자 낙후된 영상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대형 촬영스튜디오, 특수촬영실, 녹음편집실 등이 갖추어진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1991년에 개관하였음.
- 남양주 종합촬영소는 한국에서 유일한 대규모 영화촬영소로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영화의 대부분 스튜디오 촬영이 이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2001년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를 시작으로 대형 촬영소가 지방에 추가적으로 건립·운영되고 있음.
- 서울시는 과거 정릉 스튜디오(성북구 정릉동 821), 삼성 스튜디오(성동구 군자동), 원효로 촬영소(용산구 문배동), 만리동 촬영소(서대문구 2가 241) 등 영화 촬영소가 있었으나 현재 영화 촬영시설들은 철거되었고 과거의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 곳은 없음.
- 한편, 동대문구에서는 2014년 9월 과거 답십리촬영소가 있던 자리에 영화전시관을 개관하여 영화상영, 자료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화벽화, 상징조형물 등의 건립으로 답십리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음(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).

## 다. 종합의견

- 오늘날의 영화촬영소는 단순히 영화 제작장소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촬영소에서 제작되었던 영화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.
- 일례로, 1915년에 건립된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현재 대규모 촬영 스튜디오와 함께 촬영시설 외에도 다양한 테마파크와 영화관, 쇼핑센터 등을 갖추고 있어 연간 1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.
- 따라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문화유산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됨.

<붙임자료>

## 답십리 영화촬영소 관련 사업추진 현황

### 구 답십리 영화촬영소 현황

- 답십리 영화촬영소는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총 80편의 영화가 촬영된 곳으로 남양주 종합촬영소로 이전 이후 이 일대가 개발되면서 현재는 촬영소 고개, 촬영소 사거리 등 지명만 존재함

#### 〈구 답십리 영화촬영소 현황(1964~1969년)〉

- ▶ 규 모 : 1,157㎡(스튜디오 2개, 연기실 등)
- ▶ 위 치 : 동대문구 답십리 2-24(현 서울동답초등학교)
- ▶ 촬 영 : 부부전쟁('64년), 이수일과 심순애('65년), 나운규 일생('66년) 등 79편 - 「생명」('69년, 이만희 감독) 촬영을 끝으로 남양주 종합촬영소로 이동

### 답십리지역 영화문화 보존 활동 관련

- 답십리지역에는 사단법인 답십리 영화문화보존회가 동대문구청과 함께 답십리 영화전시관 기획전시 등 영화문화진흥활동을 하고 있음

#### 〈(사)답십리영화문화보존회(2010년 등록)〉

- ▶ 목적 : 답십리 일대 영화촬영소 역사적 문화적 보존과 개발
- ▶ 구성 : 약 50명, 정재식 회장(김대욱 명예회장)
- ▶ 활동
  - 2011년 '추억의 영화' 상영회와 전시회
  - 2012년 제1회 답십리 영화문화페스티벌
  - 2013년 답십리 영화촬영소 기념비 건립(11월)

### 답십리지역 거주 영화계 원로 및 자료소장 현황

- 고응호(75세) : 자주당기('68), 팔불출('80), 립스틱 그리고 남자의 사랑('94) 등 감독
- 수 량 : 1,000여점(물품목록이 없어 정확한 수치는 미확인)
- 소 장 품 : 필름편집기(신상옥감독 사용), 필름, 영화대본, 포스터, 배우사진 등
- 보관상태 : 답십리 영화전시관 지하 및 상가건물 창고에 적치상태로 보관



**□ 답십리 촬영소 영화전시관 운영(운영 : 동대문구)**

- 위 치 :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-9(동대문구 문화회관 내)
- 개 관 : 2014. 9월 개관
- 시설규모 : 308 $m^2$  (지상 1층, 지하 1층)

시 설 명	면 적	보 유 시 설
영화상영관	100 $m^2$	○ 관람석 : 71석 ※ 장애인(휠체어) 2석 포함 ○ 프로젝터 및 스크린(100인치)
자료전시관	178 $m^2$	○ 영화촬영 카메라 ○ 영화대본 및 소품 등
수 장 고	30 $m^2$	○ 고전영화 등 비디오테이프 ○ 기타 영화관련 소품 등

○ 운영 프로그램

- 영화상영 : 주3회(매주 금,토,일 14:00~16:00)
- 상시전시 및 기획전시(연 2회 이상) 운영

▷ 전시품 현황 : 촬영소품(50점), 영화배우 및 감독 애장품(100점)



○ 소요예산

- 설치예산 : 134,826천원
- '17년 운영예산 : 166,107천원

▷ 영화 체험관 등 설치(약1억원 포함), 운영 인건비, 아카데미 운영, 기획 전시 등



**□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(동대문구)**

- 사업위치 : 답십리 사거리~촬영소 사거리, 동대문구체육관~문화회관
- 사업규모 : 연장 750m. 130m
- 사업기간 : 2017년 2월~12월
- 사업내용
  - 영화벽화 조성, 상징조형물 조성
  - 영화보도, 경관조명, 포토존(영화쉼터)
- 소요예산 : 936,500천원(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시비 400,000천원 포함)